

최근 브라질의 M&A 동향 및 시사점

■ 지난 1/4분기 브라질에서 발생한 M&A는 219억 달러를 기록함.

- 이는 전 분기 대비 1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한 수치임.
 - o 이 중 외국 기업의 브라질 기업 인수는 93건으로 그 거래 규모는 55억 달러임.
- 특히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M&A를 추진하였으며, 규모면에서는 금융과 소비재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함.

표 1. 2012년 상반기 브라질 내 주요 M&A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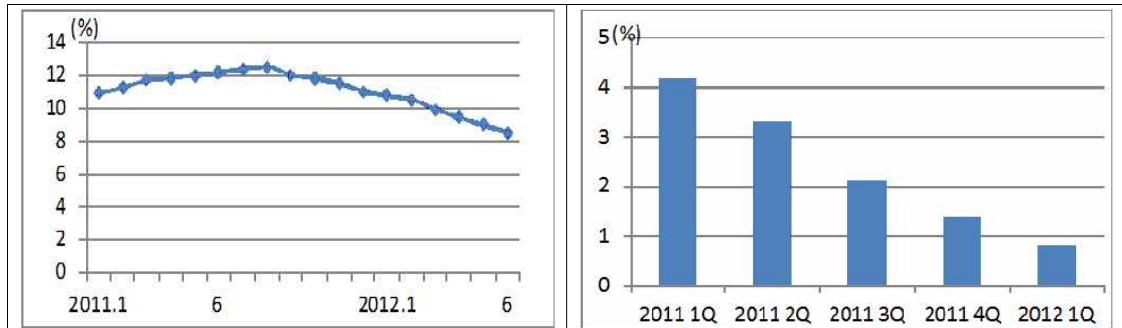
부문	M&A 대상 기업	대상 기업의 국가	인수 기업	인수 기업의 국가
금융 서비스	Redecard SA	브라질	Itau Unibanco Holding SA	브라질
음료	Ypioca	브라질	Diageo	영국
식품	Fogo de Chao	브라질	Thomas H. Lee Partners	미국
송전시설	Actividades de Construção	스페인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SGCC)	중국
가스 공급	Comgas	브라질	Cosan	브라질
에너지 개발 및 생산	Petrogal Brasil	포르투갈	Sinopec	중국
금 채굴	Anglo Gold Ashanti	남아프리카	Kinross	캐나다
비행기	Trip	브라질	Azul	브라질
물류, 운송	Rapidão Cometa	브라질	Federal Express	미국

출처: EIU(2012.6.7), "Brazil business: Mergers and acquisitions fever" 참조.

■ 이러한 M&A의 배경으로 △브라질의 내수시장 성장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 △자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 △유럽경제 악화를 들 수 있음.

- 최근 브라질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 성장에 대한 신뢰감 증가로 소매, 소비재, 통신 및 시설 부문에서 거래가 발생함.
-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011년 8월 12.5%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6월 현재 8.5%를 기록함.
- 브라질 기업들(특히 금융부문)은 해외 자본 침투에 대한 생존전략으로써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M&A를 추진함.
- 또한 유럽의 경제 위기로 유럽기업들의 자산 매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표 2.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화 및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



주: 브라질 통계청.

- 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M&A를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이를 활용한 투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난 5월 29일부터 브라질 공정거래위원회(CADE)의 불공정 거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¹⁾이 실행되면서 M&A 기준이 강화되어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이시은 연구원)

1) M&A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소요기간 최고 330일).